

전남도 “천혜의 남해안 관광자원은 대한민국 으뜸”

부산서 ‘블루 투어’ 관광설명회 개최
“전남 매력적 관광 상품 개발되길 기대”

전남도는 1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지역 여행사, 미디어,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 투어’ 관광설명회를 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관광설명회는 전남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블루 투어’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 여행업계는 전라남도의 ‘블루 투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식전행사로 호텔 로비에서는 목

포 등 전남의 10개 시군이 트래블 마트를 운영했다. 부산 여행업계는 전남관광 콘텐츠, 여행상품에 큰 관심을 보여 기대 이상의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전남도 4개 시·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 7월 진도 솔비치 호텔·리조트 개관, 9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개통을 앞둔 영광~무안 칠산대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등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또 전남의 아름다운 섬, 숲, 갯

벌, 해안선 등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남도음식, 축제, 맞춤형 여행코스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전남도와 참가한 10개 시·군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여수 오션힐 호텔, 진도 솔비치 호텔·리조트에서 협찬한 숙박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블루 투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여행업계에서 전남의 매력적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블루 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무안-김해 공항을 잇는 해외 관광상품도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남해안권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김치는 알차게”

11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 요리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해남 청무화과의 달콤함, 홍콩까지 전해진다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주), 내년부터 홍콩에 수출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주) (대표 강소정)에서 무화과 가공품을 홍콩으로 수출한다.
무화담은 최근 수출 업체와 1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무화과, 청무화과, 청무화과즙 등 무화과 가공품을 내년 1월부터 홍콩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내년 홍콩 쿼터 프라자 입점이 확정됐으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통한 현지 바이어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에 소재한 무화담은 2014년부터 청무화과를 재배해 현재 생과 뿐만 아니라 각

종 무화과 가공품을 개발, 판로를 개척하며 연 6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아이쿱, 올가플푸드, 농협 등에 입점해 해남 무화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청무화과 생산농가 확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가공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7년 HACCP 인증을 완료, 올해 5월 미국 FDA 등록 등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로 가공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해남군과 전남 중소기업진흥원과 at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수출상품 개선 및 국영문 홈페이지 제작하는 등 수출의 기반체계를 마련해 온 결과 첫 수출의 성과를 가져왔다.
해남=서명환 기자

광주시 국비 2조5379억원 확정...AI·도시철도 등 탄력

정부안보다 1129억원 증액...전년 대비 3277억원 증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산업,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2호선 등 중점사업이 내년 국비 예산 증액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광주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 2조 4250억원보다 43건 1129억원이 증액된 2조53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 2102억원보다 3277억원(14.8%)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총 4061억원 규모로 지난 1월 예타 면제에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예산안보다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시는 내년 예산 120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은 426억원만 반영됐고 국회에서 200억원이 증액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정부예산안 610억원보다 220억원 늘어난 830억원이 책정됐다.

5·18 제40주년 기념사업은 총 사업비 126억원 중 99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40억1000만원이 증액돼 65억1000만원으로 늘어 5·18 민주정신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 12억8000

만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24억 5000만원,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10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10억원, MEMS기반 고부가가치 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6억원, 라이더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15억7500만원,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16억원 등도 확정됐다.
서은홍 기자

무안군, 광주·전남 최초 양파 전문생산단지 지정

무안군이 광주·전남 최초로 양파 전문생산단지 지정돼 양파 생산·수출 산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무안군은 10일에 망운면 소재 영흥농산(영)에서 양파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현판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생산단지 지정으로

세계시장에 매년 안정적으로 무안양파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지정이 되면 매년 평가를 거쳐 수출물류비를 최대 8%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다 나은 KFS

올타리

올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올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를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S 한국농어촌공사